

2023

秋
추석
가정예배

이웃과 함께 감사하리
그는 시종 지며 그의 이치 외롭지
영원함이 크디
오대성 534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일교회**
SINCE 1985

Give thanks to the Lord
at all times
and in all word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2023년 추석 가정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가 204장	다 같이
대표기도	가족대표
성경봉독 마 7:24~27	인 도 자
말 씬 반석 위에 세운 가정	인 도 자
나 눘 올해의 감사제목 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가족 예배와 관련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차례와 제사는 유교라는 종교 사상에 바탕을 둔 조상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차례와 제사는 조상들이 신이 되어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에 단순히 조상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이상행위가 됩니다. 이는 조상들을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조상들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족 예배를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서로서로 감사함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가정

오늘 말씀에는 집을 짓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땅을 평평히 만들기도 쉽고, 기둥을 세우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혹 집을 옮기려고 집을 허문다 해도 아주 쉽습니다. 즉 신속하고, 편하게, 힘도 별로 들이지 않고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두 번째 방법은 큰 바위, 즉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모래 위에 짓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 불편함이 따릅니다. 집을 세울 만한 좋은 돌도 찾아야 하고, 때로는 집 지을 곳에 그 큰 돌을 옮겨야 합니다. 기둥을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기술자가 필요하기도 하지요. 또 일단 집을 지으면 해체해서 옮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힘과 노력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집을 짓고 나면 이 집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홍수가 나도 여간해서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도 아끼고 편하게, 힘과 노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정을 세우고자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려고 명절과 같이 중요한 날 잠깐 만나 식사 한 끼만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서로 불편하지 않으려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불편한 질문은 서로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그 가정은 폭풍우와 같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튼튼히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정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깊어지면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서로의 약점과 아픔을 오픈하고, 품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에 다소 불편할지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에 모셔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가정을 위해 노력할 때, 가정은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정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27절

-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붙임 379)

주의 말씀 듣고서

204

실경

주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 7:24)

MEMO FOR FOLLOW-7A7A2B2B5
P. 9 (1984. 12.28. 1974)

인용어(原 N. Sinner's 1981)
보장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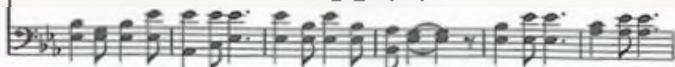
- | | |
|-----------------------|------------|
| 1.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 하는 자는 | 반석 위에 터 담고 |
| 2.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 모래 위에 터 담고 |
| 3. 세상 모든 사람을 집을 짓는 자니 | 반석 위가 아니면 |



집을 지을 갑아	비가 오고 풀 나며	바람 부딪 쳐도
집을 지을 갑아	비가 오고 풀 나며	바람 부딪 칠 때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우주 오서서	지은 상을 즐네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삼별 주리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